

감성 사로 잡는 여권형 스탬프투어 '나주모아' 흥행



나주시가 선보인 여권형 스탬프투어 '나주모아'가 감성적인 여행 콘텐츠와 역사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주목받으며 운영 보름 만에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한 여권형 스탬프투어 '나주모아'가 시작 2주 만

'젊은층 입소문' 2주만에 운영 책자 조기 소진 역사·여행 결합 '체험형 관광콘텐츠' 매력 발산

에 준비한 책자 1000부를 모두 소진하며 조기 마감됐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인 '나주모아'는 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를 단일 거점으로 운영됐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나주향교와 목사내아 등 주요 역사

명소를 연결하는 중심 동선에 위치한 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가 스탬프투어의 거점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흥행은 기존 스탬프투어와 차별화한 여권형 디자인과 감성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주시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감성 일러스트와 간결한 레이아웃을 적용해 스탬프북 자체를 단순한 체험물이 아닌 '나주 여행의 특별한 기념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같은 요소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참여 열기를 높였고 나주의 역사문화 공간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나주시는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추가 제작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스탬프북을 긴급 추가 제작해 '나주모아' 2

차 운영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2차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정민 나주시 관광문화복지국장은 "천년역사관 한 곳에서만 운영했음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재정비를 거쳐 나주의 역사와 문화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담은 2차 투어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자연·문화 어우러진 '체류형 섬 관광' 본격화

전남도 '섬섬 걸을래'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고흥군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 섬섬 걸을래'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섬섬 걸을래' 사업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섬 걷기 여행과 지역 체험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섬 관광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공모는 섬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프로그램 구성, 지역 특화

성, 교통·숙박 연계성, 관광 활성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군은 연휴도의 예술성과 해양경관을 활용한 걷기 중심의 감성형 체류 관광 콘텐츠와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확장 가능성에서 호평을 받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휴도 일원에서 걷기와 예술·치유·먹거리 체험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형 해설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휴도와 녹동항, 거금도권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 동선을 확대하고, 지역 먹거리·특산품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고흥군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 섬섬 걸을래'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고흥군 연휴도 모습. 사진제공=고흥군청

효과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휴도만의 예술적 감성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해 머물며 즐기는 차별화된 섬 관광 콘텐츠를 선보

일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고흥의 다양한 섬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화순, 콩 생산보상금 3억2000만원 지급

지난해 수매 참여 농가...지역 농업 기반 강화

화순군은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보상금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인 콩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재배 기술 축적과 더불어 쌀 괴임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농협과 수매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수확 후 수매에 참여한 농가이다.

보상금은 지난해 전락자를 직불제 등 콩 식재 이행점검이 완료된 농지 면적에 대해 ha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정됐으며, 수매량 기준으로는 kg당 500원이 지급됐다.

군은 지역 특화작목인 콩 육성을 위

해 그동안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공공동방제비 지원 △생산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화순 지역 콩 재배면적은 △2022년 47ha △2023년 138ha △2024년 230ha △2025년 407ha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콩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 조절을 목표로 추진됐다"면서 "쌀 가격 안정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과 공동방제 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기 기자 vip3355@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여수시 섬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공공데이터 활용 섬박람회 아이디어 '빛났다'

여수시, 공모전 개최...창의 정책 101건 모여

여수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여수시 섬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공모전

에는 전국 각지의 개인과 팀 참가자들이 10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참가자는 예선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한 뒤, 지난 8일 열린 최종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섬방뉴), 우수상 2팀(변동준, 섬섬옥수), 장려상

3팀(ECHOD, 플레이 섬섬,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등 총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아이디어로 섬이 달라집니다!'를 주제로 섬 관광·교통·안전·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획력, 분석 적합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발표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작을 선정했으며, 각 팀에는 여수시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 수립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섬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해남, 모내기 앞서 '왕우렁이' 피해 예방

사전 방제부터 수확 후 단계별 관리 강화

해남군이 벼 모내기 철을 앞두고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들어갔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역 평균기온은 2도 수준으로, 평년 1.5도보다 0.5도 높았다. 군은 이 같은 기온 상승이

월동 개체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저수지 인근과 용·배수로, 전년도 피해 지역 등 상습 발생지를 중심으로 방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농법 등에 활용돼 왔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

우 어린 벼를 갉아먹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벼 재배 전 과정을 이양 전, 생육 중기, 수확 전후 단계로 나눠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이양 전에는 물이 고여 있는 용·배수로와 저수지 주변, 전년도 피해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약제 방제를 실시해 월동 개체 밀도를 낮춘다. 벼가 자라는 생육 중기에는 중간물떼기 시기를 활용한 수거 작업이 추진된다. 배수로 주변에 물

길이나 웅덩이를 만들어 왕우렁이를 한곳으로 유인한 뒤, 새우망과 통방 등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수확 전후 관리도 중요하다. 생육 후기와 완전물떼기 전에는 논 안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가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변부를 중심으로 수거 작업을 해야 한다. 수확 이후에는 논을 말리고 깊이갈이 작업을 병행해 흙 속에서 겨울을 나는 개체를 줄여야 한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다산박물관, K-뮤지엄 전시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 확보...실학박물관과 공동 순회전시

강진 다산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공·사립·대학 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우수 전시 콘텐츠의 지역 확산과 박물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다산박물관은 실학박물관과 협력하여 함께 절기에 전문과 학을 접목한 전시 기획으로 선정됐다.

전시주제는 '24절기: 하늘을 읽어 땅을 살리다'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온 전통 지혜를 조명한다. 전시는 24절기를 중심으로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이를 삶에 연결한 실학자들의 노력

과 애민 정신을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서 절기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전시는 과거의 절기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생태 농부의 삶을 소개해 '실학의 현재적 가치'를 제시한다. 관람객이 일상 속에서 절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전시라는 점도 특징이다.

12일 남양주에 위치한 실학박물관 전시 개최를 시작으로 다산박물관에서는 10월에 순회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선재 다산박물관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실학 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지역성을 결합한 전시 기획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영암, '1000원 영화 관람' 선착순 혜택

영암기찬시네마서 최선작 상영...온라인 예매 가능

문화가 있는 삶을 향한 영암군의 행보가 결실을 맺었다. 영암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나섰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한 영암군은 13일부터 지역 내 '영암기찬시네마'에서 대대적인 영화 관람료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기존 7000원이었던 관람료는 6000원이 경감돼, 단돈 1000원만 내면 최신 화제작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파격적인 가격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바닥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어진다. 대략 3300여명의 군민이 혜택권에 들 것으로 보이며, 예매는 현장 발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예정당 2매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철영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극장 나들이를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읍에 자리를 잡은 영암기찬시네마는 최신 상업 영화부터 평소 접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까지 폭넓은 상영 목록을 운영 중이다. 상세한 상영 일정과 참여 할인 수량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